

['생태계 보물섬 제주' 그 百年의 기록<21>]1963년 국제연맹, '한라산 보호'필요성 제기

제1부/제주식물 세계화 100년 <20>-한라산 국립공원

입력 : 2004. 08.11. 00:00:00

1964년 동식물·지질 등 대규모 종합학술조사

1966년 한라산·제주 일원 천연보호구역 지정

1970년 국립공원지정... 국가차원 보호 제도화

제주도에 국립공원을 설치해줄 것을 제주도백이 건의한 기록은 1954년에도 나타난다. 당시 길성운 지사가 제주도를 찾은 함태영 부통령에게 제주지역 현안사항을 건의하는데 여기에 '국립공원 설치'도 포함돼 있었다.

한라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구체화된 것은 1960년대에 이르러서다.

유엔 산하 유네스코 기구의 결의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국립공원 설치를 위해 원조의 토대가 마련된다. 1963년 11월에는 국제자연자원보존연맹(I. U. C. N)의 공원설계 전문가인 윌리엄 하트(William J. Hart)가 방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돌아간 후 방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때 '한라산'을 언급한다.

하트는 보고서에서 ▷원거리 관광 가치 ▷유사 이래의 역사적 가치 ▷특유한 과학적 가치 등이 인정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호를 위해 적당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그 지역에 한라산을 비롯 설악산, 흑산도 등을 꼽고 그 검토를 권유했다.

이 보고서는 한라산이 국립공원 후보지로 부각되고 정부 차원의 조직적인 학술조사가 착수되는 단초를 제공한다.

이에따라 문화재관리국은 1964년 2월과 3월에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한라산 등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종합학술조사계획을 세우고 기초자료를 얻기 위한 현지 예비답사를 실시할 것을 결의했다.

4월에는 I. U. C. N의 산하기관인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인 로버트 씨크(Robert Seeke)가 국제협력차 내한해 천연보호구역 지정 절차에 관해 논의한다. 10월에는 분과위 박만규위원을 한라산 조사책임자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조사일정을 확정지었다.

한라산천연보호구역과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정부차원의 학술조사는 이렇게 시작됐다. 학술 조사는 지질과 동물, 식물분야에 걸친 최초의 종합조사였으며 참가인원도 56명에 달했다. 국내 최고 권위의 학자들이 한라산에 집결한 것이다. 조사단의 면면만 살펴보더라도 식물의 경우, 박만규 단장을 비롯해 이영노 임기흥 오덕봉 이우철, 그리고 제주출신으로는 부종휴가 포진했다. 동물분야에도 원병오, 조복성 등 당대 최고 실력자들이 두루 망라됐다.

한라산 학술조사는 11월 5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됐다. 이때 한라산국립공원 획선이 결정되었다. 학술조사보고서는 4년 후인 1968년 '한라산과 홍도'라는 제목으로 나왔다. 그 이전에도 집단적인 학술조사보고서는 이미 있었지만 이처럼 규모를 갖춘 조사보고서가 단행본(424쪽 분량)으로 발간되기는 사실상 처음이었다. 특히 조사보고서는 한라산 자생식물이 1,782종에 이르고 공식 언급했다. 이전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한라산 자생식물은 이덕봉이 '제주도식물상'(1957)에서 언급한 1,465종이었음에 비추어 무려 3백여종이 추가된 것이었다. 여기에는 제주 출신의 식물학자 부종휴 등의 공이 컸다.

이처럼 한라산은 각종 희귀 동·식물 등 생물의 종 다양성과 경관자원 등 자연자원의 보전 및 학술적 가치가 대단히 높은 지역으로 평가됐다.

한라산이 천연기념물(제182호)로 지정된 것은 학술조사 후 2년이 경과한 1966년 10월 12일이다. 이같은 조치는 한라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에 앞서 천연자원을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백록담을 중심으로 제주도 일원에 걸쳐 3천여만평에 이르렀다.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제1지구=백록담을 중심으로 횡단도로-논고악-영실-어승생-산천단 일원 ▷제2지구=구좌 비자림 ▷제3지구=토끼섬 ▷제4지구=납읍 금산 ▷제5지구=산방산 암벽 식물지대 ▷제6지구=안덕계곡 ▷제7지구=중문 천제연 난대림 지대 ▷제8지구=천제연 난대림지대 ▷제9지구=쇠섬 파초일엽 자생지이다.

이들 지역의 구역선을 획정할 때만 해도 당국이나 일반에게는 인식 부족으로 진통이 많았었다고 한다.

이후 한라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1970년 3월이다. 이때 설악산과 속리산도 함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전국 20개 국립공원 중 5번째로 지정된 것이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면적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을 포함하여 153km²에 이르렀다. 한라산국립공원은 제주도 면적(1,820km²)의 약 8%를 차지한다. 이로써 한라산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를 받도록 제도화되었다. 이는 한라산을 국가의 책임아래 자연경관과 생태계 등을 보전하면서 국민들의 건강과 정서 함양을 위해 지속적인 이용을 보장하고자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것이었다. 1973년에는 관리사무소가 개소되었다.

국립공원은 인류최고 아이디어

국립공원의 모토는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자연으로 돌아가 건전한 정신을 회복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 때문에 국립공원은 자연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국민의 레크리에이션 지역으로서, 또 국제적으로는 나라의 대표적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한다. 국가는 법에 의해 국립공원을 지정하고 이를 유지·관리한다.

세계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미국 서부의 '엘로스톤'이다. 이 때가 1872년이다. 엘로스톤이라는 이름은 오랜 세월 지하에서 분출된 광물성 온천수가 바위 위로 흘러내리면서 바위의 표면을 노랗게 변색시켰고 그 변색된 노란 돌들을 보고 사람들은 엘로스톤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침략기인 1930년대에 대표적 경승지인 한라산을 비롯해 금강산, 지리산이 국립공원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금강산은 기초조사까지 끝냈으나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중단됐다.

그 후 1962년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1차 세계 국립공원 회의의 자극을 받아 경승지를 국립공원화하기 위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1963년 국민운동본부 내의 '지리산지역개발위원회'에서 지리산을 국립공원화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하였고, 전남 구례군에서는 민관 일체로 '지리산국립공원위원회'가 결성되어 정부에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했다.

1967년 3월에는 '공원법'이 제정되고, 이 법을 근거로 하여 그 해 12월에 지리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것이 시초다. 이듬해인 1968년 경주·계룡산·한려해상, 1970년에 한라산, 속리산·설악산·다도해해상 등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20곳 총 6,473.1km²(육지 3,824.6km², 해상 2,648.5km²)에 이른다. 이는 남한 면적의 3.8%를 차지하는 것이다.

국립공원은 '인류가 지금까지 생각한 것 중 최고의 아이디어'로 평가받는다. 재론할 필요도 없이 국립공원은 인류가 반드시 지켜야할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립공원에 대한 보존보다는 이용을 강조해온 나머지 관광지나 유원지쯤으로 여겨져 온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립공원 탐방객의 집중적인 이용증가로 국립공원은 극심한 훼손의 위기에 처해 있다.

한라산도 인위적인 요인은 물론 자연적인 요인까지 겹쳐 훼손이 심화돼왔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뒤에 오히려 더 많이 훼손됐다는 주장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그것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당국의 비합리적인 관리정책과 이용객들의 무절제가 그 원인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강시영기자 sykang@hallailbo.co.kr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